

**Statement of SFTS Alumni/ae in Korea of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 PCUSA**

The 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COTE) made the decision to remove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SFTS) from the list of PCUSA seminaries and submitted the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approval. In short, it has caused not only legal and ethical but also theological problems.

San Francisco was the mission gateway to Asia-pacific countries and SFTS has faithfully served for the Korean church for 130 years by sending missionaries and providing higher theological education thereafter. Numerous SFTS graduates actively dedicate their lives to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as distinguished leaders. Recently, the story of one of SFTS graduates, Arthur G. Welbon(1866~1925), was broadcast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uched many Koreans' hearts.

The procedure and decision of COTE to remove SFTS from the list of PCUSA seminaries have caused some serious results like the segregation, such as damaging the devotion and sacrifice of PCUSA missionaries Korea and hurt SFTS alumni/ae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The attempt of COTE may caus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the mission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beyond the nearsighted financial issues.

We, SFTS alumni/ae in Korea, hereby deeply concern with the procedure and decision of COTE and most humbly ask the 224th General Assembly to support and protect SFTS to be enlisted as one of PCUSA seminaries and continually carry on its mission.

June 10, 2020

SFTS Alumni/ae in Korea

**미국장로교 신학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한국동문회 성명서**

미국장로교 신학교육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이 더 이상 미국장로교 소속 신학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결정과 함께, 이 결정이 담긴 권고문을 제224차 미국장로교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출발점이었고, 이곳에 위치한 150년 역사를 지닌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은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졸업생인 아서 웰본(Arthur Welbon, 1866~1925) 선교사의 이야기가 한국방송을 통해 알려져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장로교의 한국선교를 위한 노력을 훼손하고, 한국교회의 공신력 있는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은, 현실적인 재정문제를 고려한 결정을 넘어, 반복음적 반선교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한국의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동문들은 이번 신학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부디 제224차 총회 참석하는 형제자매들께서 복음전도와 선교협력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이 계속해서 미국장로교에 소속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재한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동문 일동